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21면에서 계속

선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네가 가지고 있고, 네 주인공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린 뭐냐 하면, 네 주장자가 있다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었기 때문에 수없는 게 들락거리면서 네 집을 망가뜨리느니라, 이렇거든.

그러니 네 기동이 없는데 내 기동을, 네 기동이 없는데 내 주장자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집이 비었는데, 네 집이 비지 않고 주인이 있다면 내 주인을 너를 줄 것이므로, 쥐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일을 크게 할 텐데, 네가 집이 비어 가지고 네 마음에 주장자가 없는데 내 주장자를 어떻게 네에게 한데 합쳐 줄 수 있느냐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 네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텅무멍을 통해서 눈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그저 강해나 뭐니,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전부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의식도 드러나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할 거며, 또 집이 먼저 망가지면 내가 나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 수행을 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행으로서 진짜로 들고 나는 데에 누가 하는가, 네가 하는 것을 알아, 몸은 사대가 돼서 흠어지고 말지만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간 데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증생을 살리고 수많은 은 외부의 증생들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걸 알라고 하셨죠.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에 한 부처니라. 그러나 평범한 발로 다녔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고행까지 안 하셔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서 푹푹 박아 넣었다고.

엇저게 어느 스님이 '왜 반야심경'을 그렇게 풀이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다가 써서 우리 발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초조초조 차근차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잘 참 읽는다." 차근차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따진다? 그러니까 우리들 영어죠. (대중 웃음) 그랬는데, 그것도 흥인 거예요, 글썽.

그래서 그 스님더러 그랬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경전을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때 시절에 트럭이 있었느냐, 짐차가 있었느냐, 짐차라는 이름이 있었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긴데, 그때 만약에 지게꾼이 있었다면 "지게꾼!" 하고 불러야 그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짐차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짐차를 불러야 하는 지금 시절과 지게꾼 부르던 그 시절이 다른데 지금도 그럼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불러야 하는냐? 그럼 트럭 운전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지게꾼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부르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이 옳소! 참, 우리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리고는 그만두더군요. 허허하... (대중 웃음)

오늘은 이렇게 설법하는 날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야, 뜻이, 법이, 중음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날인데 나 혼자만 지껄어서, 지껄었다고 그래야 돼요. 하하하...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그러니 질문들을,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 질문 들하십시오.

▲ 질문자(남):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법행 제법들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법행제법들이 정말 스님 말씀과 같이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늘상 그 자리고 늘상 제자리인 것만 같아 답답하여 어떻게 몸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것은 습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나참나 돌아가기 때문에 습이 붙을 자리도, 업이 붙을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증생은 몇 억겁을 거치면서 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습이 쌓여 가지고 어떻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어 가지고 이생에 와서 증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습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습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아 읊고자 합니다.

▲ 스님: 그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겁니까? (대중 웃음) 첫째는, 무조건 '내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 말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물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소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이따 죽는다고,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하나 하나씩 따지는 대로 넘들하게 넘어가면서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딱치는 대로 넘들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다 뿜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썬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썬 때는 수많은 증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게 이따 죽으면 어떻게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잘! 이 세상이 길, 그냥 길을 뿐이예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예요. 왜 사냐?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아! 이게 뭐 캄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



는구나. 이렇지않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 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예요. (대중 웃음)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갖 맛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동우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졌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빔뿔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고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곳이 그거 두 그곳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 그래서 무량심이예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보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려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러던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심,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 하다가 보면 벌써 다 닳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이다, 딱,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 그대로 소 한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릴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답답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장관도 못하겠잖! 장관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길! 그냥 길을 뿐! 그냥 살 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정주 증정!
- 희담석합정주(날개) 1만원
-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등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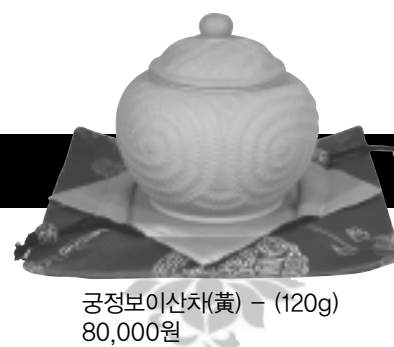
희담석(염주, 합정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 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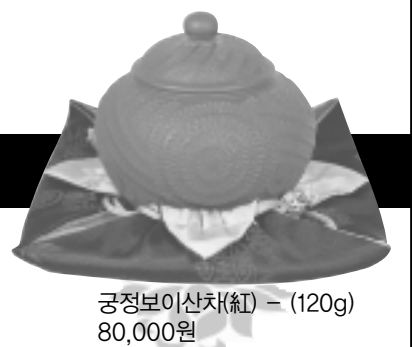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공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공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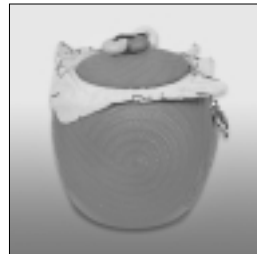
공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온남 하관에서 만든 차입니다.

동홍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입니다



동홍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홍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홍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홍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기운을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